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6.08.26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EU 집행위원, 2026년 내 차기 호라이즌 유럽 합의 기대(8.24)

- 에카테리나 자하리에바(Ekaterina Zaharieva) EU 연구·혁신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2026년 말까지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 합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
- EU 이사회는 지난 6월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부분 합의에 도달했으며, 회원국들은 차기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
- 반면, 유럽의회는 10월 말 본회의 표결까지 논의를 이어간 뒤 이사회·집행위원회와 3자 협상에 돌입할 예정

○ 전문가들, EU의 AI 텍스트 워터마킹은 글의 품질 저하시키지 않아(8.21)

-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저품질 AI 콘텐츠인 ‘AI 슬롭(AI Slop)’이 증가하면서 AI 생성물의 식별·투명성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
- 이에 EU의 AI Act는 AI 생성 콘텐츠에 사람이 쉽게 인식할 수 없는 표시를 삽입해 합성 콘텐츠 식별과 허위 정보 위험 완화를 요구함
- 그러나 구체적인 방식이 공개되지 않으면서, 일각에서는 Anthropic이 텍스트에 보이지 않는 특수문자나 표시를 추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됨

○ EU, 생명과학 분야 AI 활용 위해 ‘전략적 조정’ 필요(8.25)

- 집행위 공동연구센터(JRC)는 생물학 분야 AI 활용 현황과 산업·임상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, EU의 강점·약점·대외 의존도 및 향후 기회·위험 요인을 제시함
- 생물학 분야 AI 모델 개발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상위 20개 기관 가운데 EU 소재 기관은 독일 뮌헨공과대학교(TUM)가 유일했으며, 전체 5위를 기록함
- 상위권은 미국과 중국 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고, 유럽에서는 EU 밖에 위치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와 Google DeepMind가 포함됨

- (기타) ▲독일연구재단(DFG), “미국과의 연구 협력 강화할 것”(8.24)
▲EU 학생의 영국 대학 등록금 문제, 실현 가능한 해법 필요(8.24)